

아킬레 카스틸리오니의 디자인 관찰과 접근

Design observations and approaches of Achille Castiglioni

정 의 철

경남대학교 디자인학부

Jung Euy Chul

Kyungnam University

* 이 연구 결과물은 2010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방법

2. 본론

- 2.1. 초기 디자인: 1940년대
- 2.2. 구조 분석을 통한 리디자인: 1950년대 초
- 2.3. 가정용오브제의 색상과 형태: 1950년대 후반
- 2.4. 장식없는 디자인: 1960년대 초
- 2.5. 연구로 시작되는 디자인: 1960년대 후반
- 2.6. 독자적 디자인: 1970년대 초
- 2.7. 이포테누사로부터 지네브라 디자인: 1970년대 후반
- 2.8. 발명으로서의 디자인: 1980년대
- 2.9. 다루기 힘들어지는 디자인: 1990년대

3.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카스틸리오니는 1918년에 태어나 2002년에 타계하기까지 50여 년간 조명등을 비롯하여 가구 및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160여 디자인을 수행하였다.

카스틸리오니는 디자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태와 기능이 중요한 구성요소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디자이너의 관심사일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필요한 것은 스타일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다.”라고 종종 말하였으며, ‘디자인은 관찰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의 모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만의 독특한 방법은 사물을 이해하는데 집중된 것으로, 그의 디자인들은 이야기 식 접근에 근거하여 관찰하거나 상상적 필요가 만족스러운 디자인해결안으로 귀결된다. 제품에 영감을 주는 통찰력 있는 필요성은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갈등으로 나타나며 디자인 그 본연의 모습에서 만족스런 해결안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그의 디자인과 관련된 그만의 독특한 관찰력과 디자인 접근법을 조망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디자인 관찰, 상상적 필요, 디자인 접근

Abstract

Achille Castiglioni was born in 1918 and died in 2002. During his 50 years career, he has designed on almost 160 objects, including lots of lamp, stool and 60 objects.

Castiglioni has shown that while form and function are main ingredients for successful design, but they cannot be the designer's only concerns. He has often said, 'What you need is a constant and consistent way of designing, not a style.' and 'Design demands observation' has become one of his many mottos.

His own way has been to focus on understanding objects, basing his designs on a narrative approach in which observed or imagined need results in a satisfying design solution. The perceived need that inspired the object can be equated to the conflict central to any narrative, and the design itself then acts as the resolution, the happy ending.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focuses on the observation and the approach which concerned about his design

key word

design observation, imagined need, design approach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아킬레 카스틸리오니(Achille Castiglioni)는 2차 대전 이후 부상한 근대 이탈리아 디자인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시킨 인물이다. Sparke는 20세기 디자인 선구자들(2004)에서 '오늘날 그가 누리는 가치 신화적이라 할 만한 위상은 타협하지 않는 디자인 접근방법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가 작업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능이나 형태, 그리고 제조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재고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극히 꼼꼼한 디자인 디테일, 그리고 우아한 스타일과 훌륭한 품질은, 가구에서 조명 및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들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카스틸리오니가 이런 신화적 위상을 누리게 된 데는 디자인 뒤에 숨어있는 스토리가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그의 디자인이 뛰어 나기도 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디자인의 발상 과정들이 유명세에 힘을 보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997년 12월 우연히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카스틸리오니의 디자인 회고전 관람을 통해 본 그의 디자인들에서 볼 수 있는 색다른 관찰력이나 접근방법, 혹은 보편성에 착안한 아이디어들이 그만의 색깔과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고 이후 카스틸리오니 디자인 탐구의 단초가 되었다.

연구목적은 '디자인은 관찰을 필요로 한다.'는 그의 좌우명에 비추어 그의 디자인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들에 대한 사례 연구로부터 카스틸리오니의 디자인을 재조명해보고, 이를 통해 디자이너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관심사로서의 관찰력과 접근방법을 이해시키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1.2. 연구방법

카스틸리오니는 1918년에 태어나 2002년 사망하기까지 약 160여종의 오브제를 디자인하였다. 그중 70종 정도는 작은 형인 피에르 지아코모 카스틸리오니(Pier Giacomo Castiglioni, 1913-69)와 함께 '스튜디오 카스틸리오니'를 경영하면서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따라서 1969년까지 수행된 모든 디자인들은 두 형제의 공동작으로 발표되고 있다. 지아코모가 사망한 1969년 이후부터 진행된 90여종이 카스틸리오니의 독자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종종 팀워크의 중요성을 느끼고 다른 디자이너들과의 협동을 통한 사례들도 여럿 나타나고 있다.

연구방법은 카스틸리오니의 디자인들을 연도별 유형별로 구분 정리한 것으로 그 현황은 아래(표 1)와

같이 조명등 43점, 가구 64점, 일상생활용품 57점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여러 문헌들을 통하여 소개된 각각의 디자인들에 나타난 그의 디자인적 접근방법과 발상 그리고 디자인 개념들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해석과 관찰내용들을 종합하였다.

	조명등	가구	일상생활용품	계
1940	1	1	1	3
1950	6	8	5	19
1960	18	13	18	49
1970	7	12	9	28
1980	9	16	15	40
1990	3	14	8	25
합계	44	64	56	164

[표1] 연도별 유형별 디자인 현황

2. 본론

2.1. 초기 디자인: 1940년대

카스틸리오니의 성장배경은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버지는 세계대전의 와중에 여러 묘지 작업과 관련하여 명성이 높았으며 묘지 건축디자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조각 재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그에게 모델 작업은 디자인 아이디어와 개발 전략과의 조화를 증명해주는 디자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자주 제작했던 모델들은 크라이언트에게 프리젠테이션 용도로 있는 그대로의 최종 형태로 제작되었다. 프로젝트에 따라 축소형으로부터 실물 크기로 디자인 실체를 제작하여 테스트하고자 하였던 열정은 그만의 두드러진 조각 재능을 보여 주었으며, 그가 조각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Sergio(2004)는 '나는 항상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그것을 변형하고 완벽하게 작업해 간다. 나의 작업 방식은 모델링을 여러 개 제작한다. 이는 내가 조각가의 아들로 아버지가 손으로 작업하면서 재료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보았다.'고 카스틸리오니가 회상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라디오 수신기 포놀라(1939)를 통해 산업디자인 선두주자들로 인정받았던 큰형 리비오 카스틸리오니(Livio Castiglioni)와 작은 형인 지아코모가 1940년에 스튜디오를 단았다가 셋째인 아킬레가 1944년 대학을 졸업하자 3형제가 합심하여 스튜디오를 다시 열어 전시 및 조명디자인에 전념하였고 아킬레 역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치게 된다고 Raymond(1995)은 기술하고 있다. 1946년에는 밀라노의 유명한 가구 전람회에서 (그림1)의 포모로 손잡이와 함께 까밀로 가구 세트가 소개되었다. 급진적인 튜비노 램프는 열은 색조의 굵은 관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 단순함과 다목

적성을 특징으로 디자인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그들이 그 이후에 생산했던 수많은 실험적 디자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가 1939년 대학 과제로 디자인 한 건축적 구성방식을 접목한 실외 극장 설계가 1940년 도무스(Domus) 잡지에 출판되었으며, 그의 첫 번째 건축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증축에 관한 것으로 1943년도의 대학 과제가 태양열 마을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포놀라(Phonola, 1939): 아킬레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형들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이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디자이너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포모로(Pomolo, 1945): 세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도록 기능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함
	까밀로(Camillo, 1946): 1인실 호텔 을 위한 침대, 옷장, 테이블 및 의자 등의 가구 일체를 디자인 하였다. 대량생산, 접착기술 및 열가공 합판에 대한 실험을 목적으로 디자인.
	튜비노(Tubino, 1949): 매우 작은 6W 현광등을 사용한 것으로 가늘게 축소된 튜브의 크기는 램프의 직선과 미니멀리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그림 1] 1940년대의 디자인

건축가 혹은 전시 디자이너로서 카스틸리오니 형제의 경력은 1947년 밀라노 트리엔날레의 국내 라디오 전시회(National Radio Exhibition)를 위한 스탠드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괄목할만한 신뢰와 매혹적인 창의력으로 RAI 스탠드(이탈리아방송협회 박람회 스탠드, 1948)를 디자인한 후 이탈리아 방송위원회와 지속적인 실무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1949년 RAI 전시회와 전시관 디자인을 수행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이탈리아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카르보니(Carboni)와 후버(Huber)와 한 팀으로 작업하면서 그들의 강한 재능을 드러내며 시각적-공간적 정의에 대한 본질적인 시너지를 상승시켰다. 1940년대 후반에 '스튜디오 카스틸리오니'는 건축과 도시계획 관련 프로젝트와 디자인 공모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2. 구조분석을 통한 리디자인: 1950년대 초

	레오나르도(Leonardo, 1950): 목수용 작업대를 기초로 리디자인한 것으로 가대식으로 되어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테이블은 22mm 합판이나 12mm유리로 제작.
	브라만테(Bramante, 1950): 아주 오래된 예술가들의 가대식 테이블을 리디자인, 높이를 63cm에서 80cm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무게를 지탱하고 넓게 제작하였다.

[그림 2] 1950년대 초의 가구 디자인

(그림2)는 예리한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전통적인 가구의 기능성에 중점을 둔 가대식 테이블을 리디자인 한 것으로, 그 제작기술 우수하여 대중의 호평을 받으며 시대를 앞서나갔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

산업디자인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였고, 오히려 빌딩이나 실내디자인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도무스 잡지의 표지에 인쇄된 '밀라노 퍼마넨트 빌딩'이다. 여기서 카스틸리오니 형제는 빌딩 디자인을 전람회에 적합하면서도 도시 배경과 관련시키는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1952년 큰형인 리비오가 자신의 개인 사무실을 열며 이 그룹에서 독립해 나가는 반면 지아코모와 아킬레는 대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능케 해주는 전시장의 설비와 건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1950년대 초 중반에 걸쳐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2.3. 가정용품의 색상과 형태: 1950년대 후반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해 카스틸리오니 형제는 밀라노 국제 전시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 전시 행사들에서 중요한 위치를 부여 받으며 초청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들이 이 시기에 걸쳐 가정용 가구와 조명기구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해 낼 수 있는 밑받침이 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오브제에 대한 연구들이 (그림3)과 같이 18가지의 디자인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간접조명용 스탠드램프인 루미네이터로 재개되었는데 이는 '유용한 형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또한, 간편한 스파테르 진공청소기의 콤팩트한 형태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제품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이 당시의 여러 다른 디자인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루미네이터(Luminator, 1955): 세발 스탠드 위 튜브에 전구가 노출되도록 설치한 단순한 스타일로 보관이나 운반이 용이하고 전기 줄이 꼬리처럼 달려있다. 황금콤파스상 수상.
	스팔테르(Spalter, 1956):소형으로 가족 띠를 달아 어깨에 댈 수 있으며 미사용 시에는 벽에 걸어도 수도 있다. 바퀴가 없지만 바닥에서 쉽게 끌고 다닐 수 있다.
	도어 핸들(Door Handle, 1955): 황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손잡이의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한 인간공학적 고려. 손잡이에 옷을 걸기도 함.
	메자드로(Mezzadro, 1957): 트랙터용 안장에 크롬 도금한 스틸 바, 너도밤나무 발판으로 된 의자로서 현재까지도 생산 판매중임.
	셀라(Sella, 1957): '공중전화를 걸때 이리저리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완전히 자세는 아니지만 앉고 싶기도 하다'(Brochure,1997)는 이 디자인에 대한 착상이 매우 흥미롭다. 자전거 안장, 원형 주조 받침대, 파이프를 사용함.
	벌브(Bulbo, 1957) 1000와트 산업용 전구의 특징을 재탐색한 것으로 전구가 노출되도록 소켓을 제거하고 목을 짧게 하여 구형으로 하였고, 전구 속의 텅스텐 필라멘트가 점점 붉게 변하는 장식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책선반(Bookcase, 1957): 거실용으로 벽에 작은 못을 박고 그곳에서 양쪽으로 2가닥씩 매듭있는 철사를 늘어뜨려 그 매듭에 4개의 선반을 매달
	추시계((Pendulum clock, 1957): 1957년 11회 트리엔날레 전시장의 현관에 설치된 것으로 외형의 심플함과 명료함이 주목할 만함.
	쿠보(Cubo, 1957): 밀도가 다른 4개의 발포고무 육면체로 구성. 가운데 시트가 폭신하고 양쪽 팔걸이와 등받이는 밀도가 단단하다. 미 사용시에는 높이가 같지만 사람이 앉으면 시트가 적당히 낮아진다. 언뜻 의자가 매우 높아 보인다.
	카메라(Camera, 1958): 카메라의 모서리가 날카롭고 외양이 기계적으로 보이던 그 시기에 업체로부터 어린이를 위한 카메라 디자인을 제안 받고 자갈 혹은 계란의 형태를 적용함. 디자인이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미묘하다고 소매업자들이 거부하여 양산되지는 못함
	바벨라(Vabella, 1958): 대학의실용으로 편안하고 팔걸이가 높다. 가벼워 운반하기 쉽고 한 줄로 적재 가능하다.
	도르레 램프(Pully lamp, 1958): 도르레 방식의 실험작으로 up/down시키는 것이 가능함. 위의 큰 갓에서 전구가 멀어지면 반사되는 빛이 가운데로 집중되고 가까워지면 빛이 넓게 퍼진다.
	퍼스펙스(Perspex,1958): 직경 1m로 유리반구 2개를 결합하고 외부에 반투명 전구들을 설치하였다. 전통적인 샹들리에의 변형임.
	마리아노(Mariano, 1958): 문이 달린 장, 코너장, 책장의 3파트로 구성됨.
	Kd6(1959): 저가 조명등을 목표로 유리 갓을 심플한 형태의 플라스틱 갓으로 대체하였다.
	텔리(Teli, 1959): 쌀자루로 사용된 합성섬유를 보고 떠오른 아이디어로 무겁고 거친 라프론 섬유를 이용하였다. 직사각형 라프론 커버 2장, 알루미늄 판 2개, 천을 당겨줄 황동자루 2개를 활용하여 면사포처럼 분장. 조립 분해 포장 운반이 편리
	세코 앤 돌체(Secco & Dolce, 1959): 합리적 기능의 양식적 형식주의보다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식탁용 세트 기능에 충실한 라인의 이미지를 충실하게 유지하며 생산성을 높였다.

[그림 3]1950년대 후반의 디자인

황금콤파스 상을 수상한 루미네너를 비롯하여 11회 트리엔날레에 출품하고자 디자인된 별브 램프와 같이 카스틸리오니 형제는 국가와 기업체에서 하는 공모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쿠보 암체어는 착석에 대한 고도의 성공적인 연구로 공식화되었고 유명한 메자드로는 카스틸리오니의 '우연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우연함은 셀라에서 되풀이 되어 나타났다. 셀라는 젓 짜는 여자용 스톨의 컨셉을 곡예스런 잡종 스톨로 승화하였다. 이 두 디자인은 일반적 취향에 대한 고의적 도전으로 디자이너의 독특한 기술을 암시하였다. 이것은 본래의 의미와 용도를 박탈당한 순수한 일상용품을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전용한다는 마르셀 뒤샹의 기성품(ready-made)

개념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카스틸리오니 형제는 그들의 많은 디자인에서 '간섭'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방식을 신봉하였다(Sparke, 2004). 점, 선, 표면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한 벽에 거는 책선반과 틸레이저를 위한 입체감있는 유기적 형태의 카메라(1958)를 디자인하였다.

1950년 후반에 '스튜디오 카스틸리오니'는 그래픽 전시관(1956), RAI 전시관(1956), RAI의 라디오 전시관(1957), ENI전시관(1958) 등의 전시디자인을 하였다. 이런 가운데 특정 영역의 배경이나 하이라이트 조명에 주요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스타킹 할 수 있는 바레라(1958)의자 및 여러 조명등을 디자인하였다. 도르레식 램프를 회의실에 설치하였는데 독창적인 실험으로 프로토타입 모델 단계를 넘어 양산되지 못하였지만 조명 개념을 선도적으로 확장하였다. Kd6, Kd7시리즈 및 텔리 램프로 알려진 Kd5 도르레식 램프는 11회 트리엔날레의 실내 설계와 함께 실험된 아이디어의 결과였다. 카스틸리오니 형제는 1959년에 Reed & Barton사의 식탁용 포크 세트에 관한 이탈리아 디자인 공모전에 초대되었다. 여기에서 세코와 돌체를 개발하였다. 돌체는 이 초대전에서 1등상을 수상하였고 1996년에 그랜드프릭스로, 세코는 드라이(1982)로 리디자인되었다.

2.4. 장식없는 디자인: 1960년대 초

1959년 실외에 임시로 설치된 스푸라겐 브라우 맥주 키오스크 설계가 1960년 밀라노의 레스토랑 실내디자인 프로젝트로 확장되면서 (그림4)와 같은 스푸라겐 브라우 램프와 스푼가 스톨 및 후에 세르비(1961-87)시리즈로 발전된 우산꽃이와 재떨이(1961)를 디자인하여 레스토랑 실내에서 사용하였다. 이것은 카스틸리오니의 디자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즉, 이 단시의 대부분의 가구와 조명디자인들은 단순히 제품디자인 개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설계한 실내 환경과 관련하여 실내에 적합한 오브제를 제작한 것이었다.

	스푸루겐 브라우(Splügen Brau, 1961): 그가 설계한 레스토랑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고 가게명을 붙인 것으로, 표면을 보온병이나 칵테일 혼합기 표면과 같이 곱이 지게 하여 빛의 분산을 유발함
	스풀가(Spulga, 1960): 특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부터 고객을 보호하고자 등받이를 높였음
	세르보푸모(Servofumo,1961): 재떨이 세르보푸르비오(Servoprivio, 1961):우산 꽃이 1987년까지 다양하게 패밀리화하여 개발하였다. (1980년대 세르비 시리즈 참조).

[그림 4] 레스토랑 실내를 위한 디자인

그 외에도 1960년대 전반기에 '스튜디오 카스틸리오

오니'는 밀라노에 가비아 상점을, 볼로그나에는 공장
과 쇼룸을 설계하는 등의 여러 전람회의 쇼룸
디자인을 수행한다. 특히 다른 디자이너와 협동하여
중학교나 전문 직업학교를 설계하기도 하였고 또한
주상복합건물 등을 잇달아 설계하였다. 오브제 디자
인을 다양하게 의뢰받았는데, (그림5)와 같이 조명
분야에서 탁월한 결과물들을 산출하였다. 특히 램파
다 벽램프는 방송관련 전람회에서 이탈리아방송협회
의 판넬들을 밝혀줄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통(관)
모양의 받침대에 오목 들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형의
반사디스크를 일률적으로 나란히 놓아 사용하였다.
1962년 밀라노 박람회의 몬테카티니 전시관 디자인
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수많은 원뿔형 전등을
선으로 매달아 전시관을 환상적으로 밝혔다.

타락사쿰60과 비스콘테아는 누에고치를 새로운 방
식으로 탐구한 것이며, 가장 성공적인 아르코 스탠드
램프는 이탈리아 디자인의 아이콘이 되었다. 아르코
의 장식성이 전혀 없는 디자인은 그 후 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레레메 램프로 표출되었고 타짜아
와 토이오 램프로 이어졌다. 벤토사 스포트라이트의
독특한 디자인은 램프를 일상맞은 휴대용품으로 전
개시킨 디자이너의 관심사를 보여준다.

		램파다(Rampada, 1960): 램파다 램프 및 전시장 판넬 옆에 나란히 배치된 램프들이 보인다.
		몬테카티니 전시관 원뿔형 전등(1962)과 전시장에 설치된 전등들
		트락사쿰 60(Tracsacum 60, 1960): 일명 고치램프로 플라스틱 섬유의 풍부한 가능성을 탐구. 물을 스프레이하면 섬유가 수축되어 돌출된 구조만 도드라진다. 지름 64cm, 높이 52cm임
		비스콘테아(Viscontea, 1960): 위와 같이 기본 골격을 이루는 내부의 철사 구조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다.
		가토(Gatto, 1962): 트락사쿰과 비스콘테아의 원리를 적용하여 행잉램프를 테이블램프로 리디자인하였다.
		아르코(Arco, 1962): 거리의 가로등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천장에 고정시키지 않는 대리석 본체, 스테인리스 스틸, 반사경으로 구성됨. 전등이 본체와 2.4m 떨어져서 대리석에 뚫은 구멍에 붐을 끼워 두 사람이 들 수 있다.
		레레메(Relemme, 1962): 전등갓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리디자인한 것으로 갓의 테두리에 고무링을 끼워 때로 일어나는 충격에서 갓을 보호.
		타짜아(Taccia, 1962): 흰 알루미늄 갓을 투명 유리 볼 위에 설치함. 기계적인 투박함을 간접 반사 조명방식을 이용한 홈 데코레이션 용도의 테이블 램프임.

	토이오(Toio, 1962): 미국에서 수입된 300W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착안점이다. 무거운 변압기를 받침대 안에 설치하여 안정적인 추춧돌 역할을 한다. 가벼운 6각형 폴 대는 나사를 사용하여 원하는 높이로 조절 가능.
	벤토사(Ventosa, 1962): 실험적이고 조절 가능한 스포트라이트로서 석션 컵으로 되어 있다. 책을 읽을 때 자신의 이마에 부착하여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파파베로(Papavero, 1964): 지름 37cm의 유리 반사경, 번쩍이는 긴 파이프, 둥근 대리석 받침대로 형태 변형과 재료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보여 준다.

[그림5] 1960년대 초의 조명디자인

이 당시에 카스틸리오니 형제는 국가에서 개최된
공모전에 응모하여 T12와 같은 학생용 책걸상을 비
롯하여 (그림6)과 같이 다양한 의자들을 디자인하여
그들의 진면목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산루카(Sanluca, 1960): 신체의 여러 부위를 편안하게 하고자 인간공학적으로 연구된 것으로 시트, 등받이, 머리받침대, 팔걸이 등을 따로 분리하여 만든 후, 다양한 밀도의 패드를 넣어 완성.
	리에르나(Lierna, 1960): 식당용으로 앉은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고자 등받이를 높였고, 음식 서빙자를 위해 의자 폭을 줄였다. 올바른 자세를 유도
	T12(1960): 1960년 초등학생용 가구를 주제로 교실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걸상으로 견고하고 가볍고 규격화된 3가지 필수조건을 갖춘 디자인이 공모되었다. 평범한 가구를 정확한 비례와 스타킹할 수 있는 것과 심플한 디자인이 높게 평가됨. 황금콤파스상 수상.
	지로(Giro, 1962): 가구의 가동성을 실험한 것으로 고정된 받침대위에서 원을 그리며 도는 우회적 디자인의 회전 의자이다.

[그림6] 1960년대 초의 가구디자인

1960년대 초에는 (그림7)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오
브제 디자인이 나타난다. 땅콩자판기에 이어 대중적
인 로켓 프로젝트, 무비카메라에 대한 프로토타입 모
델을 제작하였다. 피타고라는 조립하기 용이하게 부
품을 기하학적으로 직렬시킨 디자인으로 황금콤파스
상을 수상하였다. 1964년에는 양조장에서 의뢰받은
오브제들로서 스푸루젠 맥주 컵과 쟁반을 디자인하
였다. 특히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스피나메틱 맥주통
꼭지는 형태에 대한 품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땅콩자판기(1960): 흰색과 오렌지 색으로 된 플라스틱 원기둥을 본체로 하고 필요한 기능으로 동전구멍, 땅콩을 꺼내는 레버, 낙하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였다. 하부에는 작동장치를, 투명한 위쪽에는 땅콩을 넣어두는 곳으로 높이가 다른 2층을 설계하였다. 양산되지 못함.
---	--

	로켓(Rocket, 1960): 프로젝터로서 소형 건축물을 흉내 내었다. 기계부품으로 가득 찬 내부 구조에 어울리도록 외형을 디자인하여 차별화하면서도 심플한 구성을 이루었다.
	.무비 카메라(1962): 8mm용 무비카메라 프로토타입 모델로 양산되지 못함. 카메라회사와 스튜디오 카스틸리오니와의 협업이었음.
	피타고라(Pitagora, 1961): 보다 심플하게 외관을 리디자인 할 것을 의뢰 받은 것으로, 1962년에 황금콤파스상 수상한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이다.
	스푼(spoon, 1962): 마요네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무료 사은품으로 디자인된 묘한 비대칭의 스푼으로 마요네즈나 잼을 병에서 깨끗이 훑어낼 수 있다. 슬릭(Sleek)이란 명칭으로 30년 후인 1996년부터 양산됨
	스푸루겐(Splügen, 1964): 본래의 전통적인 형태로부터 약간 변형시킨 것으로 ,맥주의 거품을 지속시키고자 컵의 입구를 좁게 바꾸었다.
	쟁반(Tray, 1964): 스푸라겐 맥주컵과 어울리도록 의뢰받아 디자인한 것으로, 다이캐스팅한 표면에 흠을 만들어 골이 지게 함으로서 유리컵들이 격리되고 지지되도록 하였다.
	.스피나메틱(Spinamatic, 1964): 맥주 따르는 장치로 1984년 황금콤파스상 수상. 이 디자인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자주 경시되었던 디자인의 형태에 대한 품위가 한층 높아졌다.
	오르세쥬(Orseggi, 1965):기존의 컵에서 형태를 업데이트하였다

[그림7] 1960년대 초의 오브제 디자인

2.5. 연구에서 시작된 디자인: 1960년대 후반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생활용품과 가구 분야에서의 카스틸리오니 작업은 연구를 바탕으로 대담한 아이디어와 풍부한 창의력으로 고조되어 이 시대 디자인의 중심이 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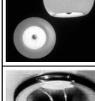
	시니어스(Cynius, 1964): 디자이너들에게 제품의 스타일을 위임하기 시작한 진취적 회사인 '브라운베가'에서 23"로 양산되었다.
	RR126 스테레오(1965): 눈, 움직이는 귀와 입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독특한 재치와 표현으로 극대화를 추구함. 다리에 바퀴를 달아 이동 가능하게 한 '음악을 좋아하는 인간 형상'을 연출하였다. 양산되지는 못함.
	케이벨 라디오 수신기(1968): 좁은 공간에 알맞도록 고안된 것으로 3면에 고무 패드를 달아 사진처럼 3개의 위치로 눕히거나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헤드폰(1967): 기존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후, 헤드폰에 라디오 기능을 합체시키는 철저한 기술적인 리디자인을 하였다.
	플로어 스위치(Floor switch, 1965): 전선이나 다른 부속품(소켓, 프러그)등과 어울리도록 디자인되었다. 2종류로 전기줄의 끝에 달거나 전기줄의 중간에 연결할 수도 있다.

	피렌체(Firenze, 1965): 아라비아 숫자 4는 로마자로 IV이지만 이 시계에서는 IIII로 표기되어 있다. 지름 36cm의 원형 시계 판에 숫자와 시분침이 시원스럽게 디자인되었다. 피렌체에서 열린 '인간의 집'이라는 전시회에 출품된 것을 1996년 알레시에서 제품화하였다.
	리드(Lead, 1968): 조명등에 연결된 전선 중간에 달아 사용하는 스위치이다. 1,500만개가 생산될 정도이다. 카스틸리오니 형제가 디자인한 것인지를 모른다.
	화병(Vase, 1968): 한 세라믹사에서 디자이너들에게 전통적인 세라믹 오브제를 현대적 형태로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기묘한 형태로 크기가 다른 화병을 제안하였다. 오른쪽 받침대가 손잡이나 다리로 보인다.

[그림8] 1960년대 후반의 오브제 디자인

위의 (그림8)에서 나타나듯이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시니어스 TV세트, rr126 전축, 라디오 수신기의 트리오가 완성되었으며, 황금콤파스상을 수상한 헤드폰을 디자인하게 된다. 이러한 디자인들은 기능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플로어 스위치의 유기적 형태가 눈에 띄며, 1500만개가 팔린 리드 스위치는 '무명 디자인'에 대한 반향을 일으켰다.

조명 분야에서는 (그림9)와 같이 스푸루겐의 변형인 블랙 앤 화이트 램프, 벽에 붙였던 램프다 램프의 변형인 파디나와 베렐라 램프로 리디자인하였으며 이외에도 가정용 라이트 볼, 치우코, 개의 형상을 닮은 스누피 램프 등을 디자인하였다.

	블랙 앤 화이트(Black & White, 1965): 빛을 확산시키거나 모으는 2가지 라이팅이 가능한 유백색의 유리를 통해 부드러운 빛을 발산.
	파디나(Padina, 1966): 전구의 소켓과 갓을 일체로 설계함. 안쪽은 골이 지게 하였고 외관은 둥근 모양이 되었다.
	베렐라(Velella, 1967): 중앙에는 백열등을 바깥쪽 유백색 유리속에는 등근 형광등을 설치하였다.
	라이트볼(Light ball,1965): 백열전구에서 발전하여 그 당시 대량생산된 우유빛 전구를 사용한 것으로 저가로 리디자인되어 가정에서 널리 사용됨.
	치우코(Sciuko, 1966): 작은 다용도 램프로 가는 파이프를 사용하여 빛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세우거나 벽이나 천정에 걸 수도 있다. 산업용 스포트라이트를 개량한 것임.
	스누피(Snoopy, 1967): 개(비극)의 코 모습에서 이미지를 가져옴. 경사진 대리석 받침대에 그 당시 새로웠던 제광장치용 노브를 달았다.

[그림9] 1960년대 후반의 조명디자인

가구 디자인에서, (그림10)과 같이 램프의 구조적인 디자인은 거리의 꽃장수 진열대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카스틸리오니의 독특한 유동성, 변덕스럽,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를 즐긴 관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전에 존재해온 오브제를 생산자가 리디자인을 요

청할 때, 리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디자인을 변경할 때는 어려운 결정이 따른다. 1910년부터 전해 내려오는 토네트 의자를 리디자인 하였을 때 내가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우선 우리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질의 차이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디자이너의 태도에 달려 있다. 디자이너는 이미지를 참신하고 심플하게 창조하는데 있어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디자인에서 연구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Sergio(2004)는 트릭 접이식 의자의 리디자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선구적 시도였던 의자들(메자드로, 셀라 등)과는 달리 알루나쵸(1966)는 이단적인 장난스런 천진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나노바의 주제가 매우 평화스럽고 안락한 반면에 스톱과 테이블 겸용인 로케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 시도였다.

	람파(Rampa, 1965): 꽃을 피는 사람이 사용하던 진열대에서 착안한 것으로 한쪽은 계단 모양의 진열대로 반대편은 중앙의 경사진 책상과 설합이 달린 선반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
	트릭(Tric, 1965): 생산 중단된 토네트 의자를 리디자인한 것으로 편안히 기댈 수 있도록 등받이를 높였고, 두터운 빨강 펠트로 시트와 등받이를 씌웠으며 접고 퍼기가 매우 용이하며 벽에 걸 수도 있게 하였다. 현재도 생산중임.
	유리 캐비닛(Glass Cabinet, 1966): 나무와 평유리를 사용하였으며 오직 2개의 장식용 못으로 쉽게 조립 가능하다.
	알루나쵸(Allunaggio, 1966): 정원용 의자로 그림자를 최소화하여 잔디가 피해 받지 않고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 3개의 발이 달린 곤충을 닮았으며 1980년부터 생산됨.
	카차비테(Cacciavite, 1966): 테이블의 다리를 드라이버 형태로 흉내내었다. 즉, 육각형의 드라이버를 닮은 다리를 테이블 상판에 나사처럼 돌려 박을 수 있으며 운송시에는 분리할 수 있다.
	나노바(Naniva, 1967): 의자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도록 형태나 크기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디자인하였다.
	로케또(Rocchetto, 1967): 플라스틱 가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디자인한 것으로 몰딩된 상판과 받침대가 모두 원형으로 제작되었다.
	카스티야(Castiglia, 1969): 스테킹할 수 있도록 설계. 주된 프레임은 2개의 파이프가 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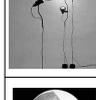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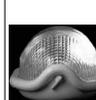
[그림10] 1960년대 후반의 가구디자인

이상과 같이 1960년 전반에 걸쳐 카스틸리오니 형제는 조명등 17점, 가구 13점, 생활용품 18점으로 무려 50여점에 달하는 오브제를 디자인하는 등의 전성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독자적인 디자인: 1970년대 초

지아코모가 사망한 1969년 이후부터 카스틸리오니의 독자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호평을 받았던 1971년의 제1회 제네바 텔레비전 전람회의

전시 설계를 비롯하여 1970년대 전반의 매우 다양한 전시장 및 쇼룸 등의 성공적인 대형 작업들을 수행하는 한편, 카스틸리오니는 가구, 조명 및 기타 오브제들에 대한 디자인을 계속해 나갔다.

	프리마테(Primate, 1970): 일본의 전통적인 저녁식사에 초대된 서양인들에게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하거나 책을 읽기 편한 자세를 제안
	데스코(Desco, 1971): U자형 파이프 3개를 묶은 후 그 위에 원형 테이블을 올려 놓았다. 제조업체를 찾지 못해 양산되지 못하였다.
	프레스비테리오(Presbiterio, 1973): 프로토타입 모델로 벽에 세운 2개의 철제 직립부에 있는 홈을 따라 가는 봉들을 끼워 내려 시트와 등받이를 이룬다.
	세르보무토(Servomuto, 1974): 18세기 영국의 회전식 쟁반의 구조를 테이블에 적용하여 세르비 시리즈로 디자인하였다.
	스피라레(Spirale, 1971): 재떨이에 스프링을 장착하는 기발한 해결안을 제안함. 스프링이 담배를 잡아 주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세척 시에는 스프링을 분리하여 세척하기 용이함.
	Tr15(1973): 외과의사와 협동, 제작된 것으로 기능을 다양화한 새로운 컨셉의 환자용 침대로 1979년 황금콤포스상 수상.
	란시아(Lancia, 1973): 신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올바른 운전자세를 목적으로 디자인. .
	리니아 세탁기(1971): 정면의 세탁기 도어에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드럼과 중심축을 맞추려고 중심에서 벗어난 사발 모양의 창으로 디자인하였다.
	에어컨(1971): 자체적으로 설수 있는 수냉식 에어컨으로 실내 어디에나 설치 가능하게 디자인된 세련된 작품이다.
	아콰돈다(Aquatonda, 1971): 1969년 아이디얼 스탠더드사로부터 유럽형 위생도기 디자인 공모에 디자이너로 선정된 후, 부드럽고 컴팩트한 조각풍의 형태로 디자인됨.
	린다(Linda, 1973): 2번째 위생도기 디자인으로 회사의 의뢰로 벽에 부착하는 세면대로 좁은 화장실에 적합하다.
	파렌테시(Parentesi, 1971): 구부린 파이프 지지대에 스포트라이트를 걸어 적절한 마찰 가운데에서 위 아래로 이동이 편리하다. Pio Manz와 공동 디자인. 1979년 황금콤포스상 수상.
	람파디나(Rampadina, 1972): 눈부심을 감소시키고자 전구의 일부를 샌딩하여 우유 빛 유리 효과를 내었다. 스위치달린 소켓, 영화필름용 릴을 받침대로 사용하였다. 이 릴은 전기 줄을 감아 두거나 벽에 걸때 사용한다.
	노체(Noce, 1972): 빛이 아래쪽에서 발산되는 램프로 위에서 비추는 자연광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발상이다. 통상적인 발상과 달리 빛을 발하는 돌, 즉 거칠게 다뤄지거나 실외에도 설치할 수 있는 램프가 기본 아이디어임.

[그림 11] 1970년대 초의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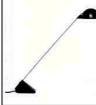
1970년대 초의 디자인으로 (그림11)의 프리마테는 인간공학적 자세를 위해 등받이를 제거한 것으로

여러 다른 착석 형태와 관련한 카스틸리오니의 깊이 있는 호기심을 보여주며, 철제 병원용 침대인 Tr15, 자동차 시트의 프로토타입 모델인 란시아(1973)와 같은 디자인들은 올바른 동작에 대한 카스틸리오니의 철학이 거듭 강조된 것들이다. 스피라레 재떨이나 람파디나 조명등은 카스틸리오니의 재치를 보여주는 디자인들이다.

‘파렌테시 램프의 최초 아이디어는 피오 만주의 아이디어로 고정된 줄에 라이트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한 생각을 일부 변형하여 완성하였다.’고 카스틸리오니는 인정하였으며 후에 이에 대한 포장디자인은 매우 획기적이었다.

2.7. 이포테누사로부터 지네브라까지: 197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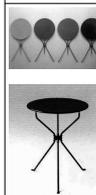
1970년대 후반에는 생활용품과 가구류에 계속 집중하였다. (그림12)의 1970년대 후반의 조명디자인으로 아오이램프는 타짜아(1962)램프를 개발하며 생각했던 아이디어로서 조명 받침대의 일반적 고정관념을 탈피해 유리 실린더로 교체하고 바닥에 구멍을 내어 직간접 조명으로 바꾸었다. 아르코 램프와 유사한 기하학적인 개념의 이포테누사 램프는 할로겐전구의 집중되면서도 부드러운 특성을 잘 나타내었다. 또한 램프받침에 무거운 변압기를 설치하여 조명등의 균형을 유지하였으며 ‘하나의 조명등으로 직접, 간접 및 확산조명을 얻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깊이 생각한 후에 얻어낸 것이 프리즈비 램프이다.

	아오이(Aoy, 1975): 지름30cm, 높이60cm로 유리 램프 밑으로 고양이가 기어 들어가 따뜻하게 잘 수 있다. 불을 밝히는 램프의 역할을 초월하여 페트와 연결하는 기지를 발휘함.
	이포테누사(Ipotenus, 1976): 아르코 컨셉을 변형하여 소형화시킨 것으로, 직삼각형의 빛변 끝에 전구를 달았다. 분해가 용이하며 포장하기 쉽다.
	비빍(Bibip, 1977): 스탠드 램프로 세라믹 헤드에 동그란 가는 핸들을 달아 빛을 회전시켜가며 조절할 수 있다. 빛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스누피 램프(1967)와 매우 닮았다.
	프리즈비(frisbi, 1978): 특이하면서도 기능적으로 빼어난 램프를 만들기 위해 구멍을 뚫은 유백색원반디스크와 동그란 지붕의 크롬 돔을 결합하였다. 아래 그림은 야간 조명시 나타난 효과임

[그림 12] 1970년대 후반의 조명디자인

1965년의 트라크 চে어의 접이식 구조가 (그림13)의 트라크 테이블에 적용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콰르크 테이블에서도 반복되었다. 쿠마노 테이블은 사용치 않을 때 벽에 걸 수 있도록 장식적인 효과를

연출하였으며, 에타는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디자인이며 베타는 벽에 고정시켜야 하는 것으로 후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에타베타 조립식 선반을 이루게 되었다. 카스틸리오니는 트라크 চে어를 팔걸이가 있는 지네브라 암체어로 변형하였다.

	트라크(Trac, 1976): 파올로 페라리와 공동 제작한 작은 테이블로 1965년에 제작된 트라크 의자의 접이식 구조적인 특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콰르크(Quark, 1982): 위의 트라크 테이블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으로 설함과 선반을 테이블 다리에 달았다.
	쿠마노(Cumano, 1979): 고전적인 지중해의 야외용 커피 테이블을 개량함. 사출성형된 독자적인 조인트를 사용하여 접을 수 있도록 함. 테이블 상판에 작은 구멍을 뚫어 사용치 않을 경우 벽에 걸어 보관이 쉬우며 장식적 효과도 연출.
	일마(Irma, 1977): 리에르니를 변형한 것으로 등받이가 좁고 길며 척추를 지탱하도록 자연스런 곡선 형태를 만들었다. 기능을 중시한 디자인임.
	세나(Cena, 1977): 자노타에서 생산된 것으로 4개의 둥근 파이프를 테이블 상판과 분리 가능
	바스(Bass, 1979): 평범한 커피용 테이블로 다리를 접을 수 있으며 합판으로 제작되었다.
	에타 베타(Eta Beta, 1979): 파올로 페라리와 공동 디자인한 것으로 사방이 오픈된 책장이다. 4개의 지지대, 높이 조절 가능한 선반이다.
	지네브라(Ginebra, 1979): 너도밤나무로 제작된 팔걸이가 있는 접이식 의자. 공간이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 가능.

[그림 13] 1970년대 후반의 가구디자인

1970년대 후반에는 쇼룸, 전람회, 상점, 기업체의 본사, 사무실이나 아파트 등 상당히 걸출한 건축적인 디자인들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실내 디자인들을 수행하며 공간내에서의 조명등이나 가구류 등이 위의 (그림 12),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차별화되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에 보이는 전화기는 일반적인 대칭 형태를 파괴하고 사용하기 쉽고 외관을 개선하고자 경사를 주어 디자인을 수행하였다. [그림 14] 1970년대 후반의 오브제디자인

	전화기(1977): 지멘스사에서 미래 시장을 대비해 새로운 경제성있는 전화기를 모색하고자 디자이너들을 초대한 공모에서 페라리와 공동으로 제안한 한손으로 잡을 수 있는 프로토타입 모델
	폰테(Fonte, 1978): 냉온수 겸용 수도꼭지로 라운드를 살린 형태로 리디자인하였고 광택이 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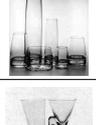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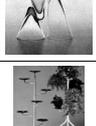
이때를 정점으로 제품디자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오히려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구사할 수 있는 오브제들로 그의 디자인 영역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90년대에는 그가 다루었던 전기

제품디자인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미 언급하였던 조명등과 가구를 제외하고는 소규모의 생활용품 오브제들에 치중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2.8. 발명으로서의 디자인: 1980년대

1980년대의 카스틸리오니는 플로스, 비비비 벤시아, 프렉스폼, 자노타 등으로 부터의 정기적인 디자인 위탁으로 수많은 전시장과 스탠드를 디자인하였다. 튜린시의 거리 조명과 같은 도시계획에도 참여할 만큼 다양하고 활발한 전성기를 보내게 된 시기이다.

1980년대에 오브제 디자인에서 카스틸리오니가 다루었던 주제들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일부는 새로운 것들로 (그림15)와 같은 모자, 양념용기, 유리컵, 촛대, 라디에이터 등을 디자인하였다. 또한 새로운 재료들 특히 대리석에 대한 관심에서 재떨이, 테이블, 난로, 분수대등을 디자인하였으나, 분수대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유럽의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라이(1982)는 결과물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기술 수준에 따라 스스로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카스틸리오니의 결연함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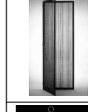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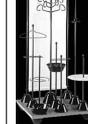
	중절모(Men's hat, 1980): 빵을 만드는 알루미늄 푸딩 몰드의 형태를 본 따서 디자인함.
	아세토리에레(Acetoliere, 1980): 기름과 식초 사용시에 가장 골칫거리인 뚜껑을 관찰하였다. 기름을 따르고 난후 흘러내리면 어쩔 줄 몰라 한다. 기름을 따를 때에는 뚜껑이 저절로 열리고 병을 세우게 되면 뚜껑이 닫히게 된다. 즉, 평형추 뚜껑이 달린 기름과 식초용 양념병이다.
	드라이(Dry, 1982): 6각형의 제도용 연필의 인간공학적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손잡이에 적용한 돌체(1959)를 발전시킨 디자인. 형태가 직선적인 것이 특징으로 제작이 용이하다.
	필(Phil, 1982): 주목적이 2개의 양념 병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이다.
	오비오(Ovio, 1983): 크리스탈 유리가 서로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컵 하부에 고무링을 끼웠다.
	파로(Palo, 1983): 유리업체의 뛰어난 수공예기술을 세심하게 관찰하고는 크기가 다른 2개의 유리잔을 서로 어긋나게 붙였다. 와인 잔으로 높이가 20cm임.
	알베로(Albero, 1983): 화분을 올려놓을 수 있는 화분대로서, 최종적으로는 한그루의 나무로 보인다.
	접이식 쟁반(Foldable Tray, 1982): 3모서리를 확장하여 크기를 넓힐 수 있도록 설계하였지만 양산되지는 못하였다.
	쟁반(7000 Tray, 1983): 크기가 다른 3개를 겹쳐 놓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쟁반으로 안정감있는 손잡이와 쟁반 가장자리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라디에이터(HP radiator, 1984): 알루미늄 다이캐스트하여 제작된 것으로 1971년에 디자인되었던 것을 리디자인하였다.
	5c handle (1983): 위의 도어 핸들을 발전시킨 것으로 납작한 핸들이 마치 손을 향하듯 위쪽으로 경사져 있다. 여기에 옷을 걸 수도 있도록 약간 구부렸다.
	메노라(Menorah, 1985): 유대교의 제식에서 사용되는 촛대로서, 프레스된 반원형 2개를 리벳으로 결합하고 받침대로 오토티움 핸들 바를 사용한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대리석 재떨이(1986): 지름 26cm로 큼직하며 두께는 얇다. 윗면의 테두리는 안쪽으로 경사지고 받침대는 부드럽게 곡선 처리되어 있다.
	폰티나(Fontina, 1987): 130cm의 대리석 사각 기둥 양쪽에 높이가 다른 수도꼭지를 설치하여 식수대로 사용.
	레코드(Record, 1989): LP판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가능한 한 사계 판을 크게, 케이스는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글씨는 읽기 쉽게 디자인하였다.

[그림 15] 1980년대 오브제 디자인

5c 도어핸들(1983)과 그 부속품은 카스틸리오니가 이루어 낸 고도의 간결함과 종합된 힘을 요약해 보여준다.

80년대의 가구디자인에는 (그림16)의 쏘로네 오피스용 테이블을 비롯하여 스크린, 삼각대, 악보대와 같은 보다 전래적인 것을 의외로 리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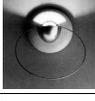
	쏘로네(Solone, 1982): 여러 업무를 빈번히 관장하는 임원들의 필요에 충족하고자 하였다. 즉, 테이블이 오목 들어가고 외곽은 볼록 나오게 하여 손을 멀리 뺄 수 있거나 상대방이 테이블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트레스포로(Trespolo, 1984): 다리가 3개인 작은 사각형 스탠드이다. 높이가 116cm이며 사각의 받침대는 회전하도록 되어 있다.
	스크린(Screen, 1984): 칸막이용으로 검정 알루미늄 프레임이며 투명도가 매혹적이고 미묘한 명암의 배합을 일으킨다. 조인트가 있어 360도 회전 가능하며 다른 것들과 연결하여 사용
	세르비(Servi, 1961-1987) 시리즈: 재떨이와 우산꽃이(1961)를 비롯하여 테이블(1974), 포스터 스탠드(1984), 칸막이(1984), 옷걸이(1985), 악보대(1985), 수건걸이(1986), 깃대꽃이(1986), 와인대(1987)등 갖가지 오브제들로 확장되었다.
	산카로(Sancarlo, 1982): 파이프로 된 2개의 프레임에 뼈대로 하여 서로 밀도가 다른 3개의 패드를 사용하였다. 맨 위에는 머리 받침대로서 부드러운 패드, 중간은 편안한 패드로, 3번째는 단단한 것을 사용하였다. 소파와 암체어가 있다.
	로사카무나(Rosacamuna, 1983): 파이프의 결합구조나 단단함을 다양화할 수 있는 결합방식을 탐구한 접이식 디자인.
	임페리얼(Imperiale, 1983): 똑바로 앉거나 뒤로 눕는 등의 신체 무게에 따라 각도를 달리 유도할 수 있음.

	카밀라(Camilla, 1984): 이탈리아 북부 언덕위의 별장에서 가져와 리디자인한 것으로 접어서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변형. 원래 나무로 된 것을 플라스틱으로 대체.
	타부라 (Tabula, 1984): 테이블 상판과 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자 비스듬히 빗각으로 된 브래킷 부품을 고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작.
	2T(1985)테이블: 대리석업체(Up & Up)로부터 의뢰받아 디자인. 대리석의 장식적 표면을 살리고자 노력.
	이티이티(1986): 복잡한 시스템의 침대로 매트리스 지지대의 통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해먹효과'를 줄이기 위해 매우 과학적인 팀의 구성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 결과임
	이파즈(Ipaz, 1987):1968년 아르코에 적용한 대리석을 테이블에도 적용해보았다.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래와 함께 대리석은 독특한 비싼 수공예 재료에서 양산할 수 있는 기능적 아이템으로 바뀌었다. 대리석의 자연적인 특징을 잘 조화시켰다.
	바셀로(Basello, 1987): 선반이나 스톨로 사용 가능하다. 하나는 U자 또 하나는 L자 형태로 높이가 다르며 서로 어떤 각도로도 배치할 수 있다.
	조이(Joy, 1990): 위의 바셀로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것으로, 7개의 선반을 포개 모아서 한쪽 벽면에 세우거나, 방의 한 가운데에 펼쳐서 설치할 수 있다.
	메리노(Merlino, 1988): 1950년의 브라만테 테이블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박물관, 전시장에서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것으로 책, 그림, 사진이나 서류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독서대이다.
	코모도(Comodo, 1989): 전통적인 작업 테이블을 침대용 테이블로 리디자인한 것으로 뜨개질용품, 공구, 우표 등을 보관할 수 있다.

[그림 16]1980년대 가구디자인

또한 세르비 시리드로서 여러 오브제들을 세트화하여 디자인하였다. 산카르로(1982)는 이전에 만들었던 산루카(1960)의 안락함을 리디자인하였다. 또한 조이의 간결함이나 기능은 바셀로가 변형된 아이디어로 디자인되었다. 이와 같이 가구에서 보여지는 그의 리디자인들은 매우 새롭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명분야에서 카스틸리오니는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독창적인 결과들을 이루어내었다. (그림17)의 지비자나 테이블 램프를 비롯하여 조비, 모니, 스타이로스 및 그림에 이르기까지 매우 기술적이면서도 새로운 조명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흥미있는 디자인들을 이루어 냈다.

	지비자나(Gibigiana, 1980): 긴 본체속의 할로겐 램프에서 발산된 빛이 위의 거울에 반사되어 비추고 싶은 곳만을 정확히 밝혀준다. 룸메이트에게 방해되지 않고자 하는 평범한 문제에 대한 해결안이다. 형태는 마치 과학적인 목적으로 디자인된 도구처럼 보이도록 철저히 설계됨.
	지오비(Giovi, 1982): 새장의 구조를 이용하여 광 크라운의 특수효과를 벽면에 연출하고자 하였음. 아래 그림은 그 결과로 나타난 조명 효과임

		모니(Moni, 1982): 위의 지오비를 변형하여 천정용으로 리디자인하였다. 옆 사진은 그에 따른 조명효과이다.
		스타이로스(Stylos, 1985): 2m의 원기둥으로 아래 쪽과 맨 위의 2곳에 전등을 설치하고 한쪽 혹은 양쪽 모두 등을 켤 수 있다.
		그립(Grip, 1985): 서재용 스탠드 램프로 경사지게 하고 마이크처럼 보이는 곳에 전등을 설치하였다.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며 한손으로도 조절 가능함.
		프리쎄(Plisse, 1985): 원형의 편평한 갓을 주름지어 빛의 반사효과를 추구하였으며 누에고치 형태의 유백색 유리 속에 전구를 설치함.
		비스비(Bisbi, 1987): 스탠드 램프인 비빔을 벽 램프로 변형한 것으로 가늘고 둥근 핸들을 사용하여 빛의 방향을 360도 회전할 수 있다.
		타락사쿰88(Taracsacum, 1960): 알루미늄으로 주조된 20개의 삼각형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삼각형에는 3, 6 혹은 10개의 전구를 매달 수 있다. 모두 60, 100 혹은 200개의 전구를 사용한 3가지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팔터(Parter, 1989): 짧은 것은 65cm로 벽에 내장된 전선과 연결되며, 긴것은 2m로 전원에 연결하도록 리드선이 있다. 상단을 구부러 벽면을 반사체로 활용하고자 의도함.

[그림 17] 1980년대의 조명디자인

특히 전시장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을 작업하면서 트락사쿰 88과 같은 커다란 천정용 램프를 디자인하게 되었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의 아이디어는 이미 1960년의 RAI(이탈리아방송협회)의 전시회에서 비롯되었다. 이 조명등의 아이디어는 수많은 추가 달린 전통적인 샹들리에를 전구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2.9. 다루기 힘들어지는 디자인: 1990년대

1990년대 초반 어떻게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카스틸리오니는 간결하게 대답하였다. '경험이 있다고 확신이나 신뢰를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실수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자인하는 것이 더욱 다루기 힘들습니다. 대처법이요? 겸손히 인내심을 갖고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노력은 오브제의 주요한 구성요소들을 유지하면서도 독특한 형태를 모색한 흔적이 그가 디자인한 여러 오브제나 가구들에서 입증되었다. 예를 들면, (그림 18)의 다목적 룬간고로 가구의 운율적 표현, 트리오 코너장의 동적 불안감, 펜타 캐비닛의 뼈대를 드러낸 구조물등으로 표현되었다.

1990년대에는 그의 나이 80대로 (1970년대에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던 1980년대에는 거의 억제할 수 없게 된) 일반적인 경향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는데, 항상 잘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혈통과 절충하여 필연적인 잡종물들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메

이트, 과도하게 변형된 스카란드리노, 어린시절의 기억에서 기인한 스크리파레토 테이블 등으로 나타났다.

	문강고로(Rungangolo, 1991): 코너에 가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안이다.
	이시(Isi, 1991): 폭이 좁은 침대용 사이드 테이블로 높이가 120cm이다. V자형의 무거운 주철 받침대에 검은색 파이버버드를 세웠고 선반의 길이를 다양하게 하였고, 뚜껑이 달린 작은 설합도 부착
	트리오(Trio, 1991): 높이 1m로 나무에 니스칠한 삼각대로 전통적인 목 가구를 현대화시킨 코너용 선반임.
	산지로라모(Sangirolamo, 1991): 모듈식 오피스용 가구 세트로서 디 루치(De Lucchi)와 공동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던 디자인 사례이다.
	탕그람(Tangram, 1992): 이면각을 이루는 2개의 파이프 받침대에 12mm 두께의 부등변 사각형 유리판을 올려놓았다.
	스탠드 달린 트레이(Mate tray with stand, 1992): 트레이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였고 그중 양쪽을 좀더 높게 하고 곡선처리 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손잡이로 사용토록 하였다. 이것을 접을 수 있는 스탠드위에 올려놓았다. 크기가 다른 2종류가 있으며 높이가 50cm이다.
	힐리(Hilly, 1992): '판에 박히지 않은 독창적인 소파를 생각하였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소통'에 관심을 가졌고 어떤 상황에서 서로 사람들이 알게 되는지 추측하였다. 소풍가는 장소나 시골 풍경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리하여 실내에서도 그런 감정을 일으켜보고자 하였다.'고 회상한다. 사람들간의 교제를 촉진하고자 의도한 소파임. 형태는 지형도를 닮게 하였고 3종류로 제작.
	포레트(Polet, 1992): 등받이가 매우 높은 팔걸이가 있는 의자로 침대로도 사용 가능하다.
	픽스(Fix, 1994): 기존의 두꺼운 침대용 쿠션을 사용하였다. 미술관, 병원, 대기실, 공항, 신혼집, 어린이 방에 설치할 목적으로 기다리기 지루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자 디자인.
	스카란드리노(Scalandrino, 1994): 책상이나 책장으로 전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를 위해 조인트를 구축하는 방법을 계속 탐구하였다
	펜타(Penta, 1994): 작은 캐비닛으로 너도밤나무로 프레임 만들고 5각형의 유리 선반을 달았다.
	스크리파레토(Scrittaretto, 1996): 가정용으로 아래 양쪽에 선반이 2개 달려 있어 책을 올려놓을 수 있다.
	바셀로니(Basellone, 1998): 1987년의 모듈 가구였던 바셀로 시리즈의 최종 버전임

	40/80 암체어(1999): 3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에 공중에 떠있는 듯한 심플한 조립식 의자. 제자의 졸업작품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제품화함.
---	---

[그림 18] 1990년대의 가구디자인

이외에도 힐리 소파, 포레트 의자겸용 침대, 픽스 의자등을 디자인하였다. 1990년대 말 카스탈리오니(80세)가 제자인 젊은 디자이너 라비아니(40세)와

	브레라(Brera, 1992): 소켓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리 갓을 돌로 나누었다. 둘 사이에서 계란 형태의 연속성을 살리려고 하였다. 행잉램프를 스탠드 램프로 변형하기도 하였다.
---	--

	폭시아(Fucsia, 1996): 지름16cm, 높이 35cm인 원뿔 형태의 모서리를 갈아서 직접적인 빛의 반사를 차단시켜 거꾸로 세우고 충격을 방지하려고 투명 실리콘 링을 끼웠다. 40와트 전구를 긴 알루미늄 튜브에 설치함. 한 개만 사용할 수도 있고 3개, 8개 혹은 12개씩 묶어 설치할 수도 있다.
---	--

	디아보로(Diabolo, 1998): 역원뿔 형태를 천정에 고정하고 그 안에 설치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1m까지 길게 늘어뜨릴 수 있다.
---	---

공동으로 디자인하여 개발한 의자에 40/80이란 명칭을 붙여 스승과 제자 사이의 친밀함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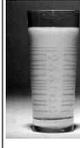
[그림 19] 1990년대의 조명디자인

(그림19)에 있는 1990년대의 조명등으로는 계란 형태를 조명에 적용하여 크게 성공한 브레라의 우아함, 본질적으로 전구를 밀집시키는 이전의 아이디어가 되풀이된 폭시아, 미니멀리즘에 대한 그의 애정을 다시금 보여 주고 있는 디아브로가 있다.

	코란더(Colander, 1996): 큰 볼 안에 손잡이가 달린 스틸 바구니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흐르는 물에 과일을 씻고는 바로 볼에 담아 식탁에 내간다. 바구니와 볼 사이의 공간에 물기가 빠지게 하여 딸기, 체리, 포도와 같은 과일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
---	---

	온돌아(Ondula, 1996): 과일접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금속으로 제작되었다.
---	--

	그랜드 프리스(Grand Prix, 1996): 새로운 형태로 전개하기 보다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기능에서 영감을 받았던 세코(1959)를 발전시켜 1996년부터 알레시에서 양산됨.
---	---

	바코드(Bar code, 1996): 약간 경사진 투명 유리 컵으로 시대성있는 그래픽 디자인의 의미를 부여코자 바코드를 표면에 배열하였다. 씌어 진 글씨는 제작년도를 나타낸다. 빈 컵일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유가 가득차면 흰색 글씨가 부드럽게 나타난다.
---	---

	아미쉬(Amici, 1996): 냅킨 홀더로 에이즈 연구를 돕고자하는 경매에 즈음하여 디자인하였다. 얇고 긴 스틸을 하트 형태로 만들었다. 작은 구멍을 내어 도장 시에 걸이로 사용코자 하였다.
---	---

	알라(Ala, 1996): 테이블이나 식탁위의 빵부스러기를 주워 담는 쓰레받이 이다.
---	---

	바베로(Bavero, 1997): 용도가 다른 11가지의 식기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하지만 특징으로 용기의 가장자리를 경사지게 하였다.
	가습기(1998): 직경 5cm에 길이 35cm의 가늘고 긴 세라믹 튜브를 이용한 벽걸이용 가습기로서, 안에 물을 채워 구부러진 고리에 걸어 두어 공기의 건조함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림 20] 1990년대의 오브제디자인

식사용 테이블에 필요한 3가지 디자인으로 과일을 씻고, 물을 빼내고, 과일을 차려낼 수 있는 코란더 과일 스탠드, 미니멀리스트적인 알라 빵부스러기 팬, 기하학적인 플라스틱 온돌아 과일접시가 있다.(그림 20 참조)

이외에도 1990년대에도 그의 팔목할만한 특징으로 전시디자인과 관련되어 자노타, 프로스, 론고니, 카시나 등의 기업체를 위해 무역전람회장을 포함하여 여러 쇼룸 등을 설계한 것은 건축이나 실내디자인 영역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다.

3. 결론

1940년대 초부터 시작된 그의 디자인 경력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후 그가 설계한 실내디자인에 필요한 가구와 조명등을 비롯하여 생활속의 오브제들로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8차례에 걸쳐 황금곰पा스 상을 수상한 경력으로 보아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디자인에의 도전정신을 읽을 수 있다. 그가 디자인에 관여했던 160여 가지 각각에 대한 관찰과 디자인 접근을 종합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카스틸리오니의 디자인에는 기성품을 재활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그림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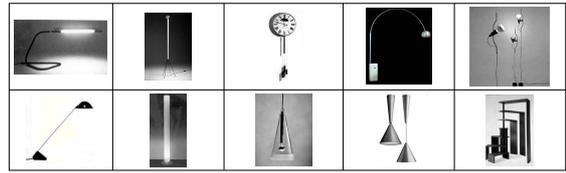


[그림 21]기성품류(Ready-made objects)

대표적인 메자드르(1957), 셀라(1957)스툴을 비롯하여 볼보(1957), 텔리(1959), 비스콘테아(1960), 토이오(1962), 벤토사(1962), 람파디나(1972)조명등, 메노라(1986)촛대, 픽스(1994)의자는 당시 쉽게 구할 수 있던 부품들을 자신의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기성품의 재활용을 디자인 소재로 즐겨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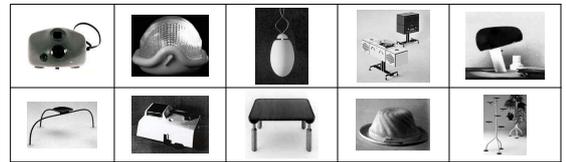
2) 당시에 유행하였던 미니멀리즘적 디자인의 영향을 받아서 디자인한 것들로 최초의 튜비노(1949) 램프를 비롯하여 루미네이터(1955), 아르코(1962), 파렌테시(1971), 이보테누사(1976), 스타이로스(1986), 폭시아(1996), 디아보로(1998) 램프에 이르기까지 유용

한 형태로서의 미니멀 디자인을 일생동안 추구하였다.(그림22 참조)



[그림 22]미니멀리스트류(Minimalist objects)

3)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형태를 오브제의 외관에 적용하는 표현주의적 디자인을 즐겼다(그림23 참조). 자갈이나 계란의 형태를 적용한 카메라(1958)나 노쉐(1972) 브레라(1972)램프, 강아지의 눈 귀 입의 이미지를 구사한 RR126(1965)전축과 스누피(1967)램프, 곤충을 닮은 알루나쥬(1966)의자, 건축물을 응용한 로켈(1960)프로젝터, 드라이버의 형태를 테이블 다리에 적용한 카차비테(1966)테이블, 빵의 형태를 닮게 만든 중절모(1980)가 있다. 특히, 알베로(1983)는 나무를 실내로 끌어 들이고자하는 의도에서 디자인된 것으로 그의 디자인이 자연과 인공물들에 대한 관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3] 표현주의류(Expressionist objects)

4) 사출에 의한 디자인, 즉 플라스틱 디자인으로 경제적, 인간공학적, 기술적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외관을 개선하는 일에 관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24 참조). 포놀라 라디오 수신기를 비롯하여 스피테르(1956)진공청소기, Kd6(1959)조명등, 플로어 스위치(1965), 땅콩자판기(1960), 시니어스(1964)TV, 전화기(1977), 마요네즈 스푼(1962), 로케또 테이블(1967)등이 있다.



[그림 24] 플라스틱류(Integral objects)

특히 리드(1968)스위치와 같이 발명품 수준의 제품을 최초로 개발하여 1500만개 이상 제작 판매되기도 하였다.

5) 리디자인에 의한 디자인들로 120여개의 디자인이 해당된다. 지오비(1982)와 같은 조명 효과, 스푸루겐 브라우(1961)의 갓의 변형에 의한 장식성 향상과 장식적 효과를 결들인 쿠마노(1979)테이블, 감성적 접근에 의한 문제해결로서의 힐리(1992)소파 리디자인이 돋보인다.



[그림 25] 리디자인류(Redesign objects)

또한 인간공학, 기능, 구조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바벨라(1958) 쿠보(1957) 카밀라(1984)와 같은 의자를, Tr15(1973) 란시아(1979)등과 같이 팀워크를 이뤄 인간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마요네즈 스푼(1962), 스푸루겐 맥주컵(1964), 스피라레 재떨이(1971) 아세토리에레(1980)용기와 같은 철저하게 기능을 중시한 리디자인, 대리석의 효과를 접목하여 이파즈(1987)테이블을 디자인하는 등 재료에 대한 연구 등 수많은 조명, 가구, 생활용품들의 리디자인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25 참조)

결론적으로 카스틸리오니가 수행하였던 많은 디자인들이 성공한 이면에는 디자인에 내포된 함축적인 내용들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디자인 방법은 사물을 이해하는데 집중되었으며, 관찰로부터 비롯된 상상적 필요에 의해 만족스러운 디자인해결안을 제시하였다. 즉, 오브제에 영감을 전하는 통찰력 있는 필요(need)는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갈등으로 나타나며 디자인 그 본연의 모습에서 만족스런 해결안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Penny Sparke. 김난령 역, (2004). 디자인의 역사: 20세기의 디자인 선구자들, 예경. p.194
- Raymond Guidot, 김호영 역, (1995), 현대디자인의 역사 1940-1990. 도서출판 아르스. p.303-304
- Sergio Polano, (2007), Achille Castiglioni. Electa architettura
- Paola Antonelli & Steven Guarnaccia. (2000). Achille Castiglioni. Corraini Editore.
- The museum of modern art, (1997), Achille Castiglioni Design Brochure, New York. Thomas Hauffe, 1996, Design, Barron's
- Kathryn B. Hiesinger & George H Marcus, (1993), Twentieth-Century Design, Abbeville Press.
- Penny Sparke, (1988), Design in Italy, Abbeville Press.
- Albrecht Bangert, (1980), Italian Furniture Design. Bangert Publication.
- Studio Museum Achille Castiglioni,
<http://www.achillecastiglioni.it>